

정부, 이번주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

정부가 이번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원이 늘어나면 필수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등 소위 '낙수효과'가 발생할지 주목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필수의료와 지방의 위기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를 목표로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100명 안팎부터 파격적인 수준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로 351명이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17년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1명(한의사 포함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을 밑돌고 있다.

정부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가 부족해 허덕이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 졸업생들이 수도권이나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 집중돼 시장이 포화되면 지방이나 필수의료 분야로 진출하는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환자가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등 응급실 배후 진료과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정부 "낙수 효과로 필수의료·지방의사 늘어날 것" 의료계 "필수의료·지방유입 동인 없인 효과 의문"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외과·응급 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은 물론 다양한 진료과 의사를 구하기 힘든 심각한 '지방의 의료공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료 현장에 배치되면 10년 이상이 걸려 지금 배출되는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필수의료나 지방을 살릴 기회조차 확보할 수 없다"면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필수의료 수가(진료비)를 올리고 지역에 거주하는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의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발생하는 보건 의료 문제를 막아내기 위해 폐장기적 관점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전망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의료 수요가 크게 늘어 2050년 의사(한 의사·치과의사 제외)가 최대 2만2000명 부족해질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추계 결과도 있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의사 한명당 업무량을 2019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외래진료, 입원 등 의료 수요에 대응하려면 2050년 최대 2만2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며 낙수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과목과 지역에 의사가 쏠려 있는 게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 현장에 인력이 유입되고 진료를 유지할 수 있는 동인이 없으면 늘어난 인력이 과잉의료, 성형, 안과 같은 분야로 진출해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현장의 필수의료, 지방의사들의 이탈을 막고 특정과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처우 개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부담 경감 등 대책 마련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는 10년 이상 뒤 효과를 볼 수 있어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면서 "굳이 힘든 과를 가느니 차라리 전문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대생도 많아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하고, 수도 조정한다면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볼수록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은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의대 증원에 나선다면 총파업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각하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있다"면서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 전문가들과 상의 없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아 외과 의사는 전국에 40명이 채 되지 않아 대가 폭길 지경이고 소아과 의사들은 의료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관련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라남도 목포를 방문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단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전북도, LA한인축제·아리랑축제에서 도내 농식품 알리

도내 기업 총 23개사 참가... 45만 달러 현장 판매·90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 일취 김관영 도지사, 전북 홍보관 방문·참가업체 격려... 미국 시장 개척 창구 역할 특목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LA 한인축제 농수산물 스톱오 오렌지카운티 아리랑축제에 도내 농수산물 기업 23개사가 참가해 45만 달러의 현장 판매 성과와 9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LA 한인축제에 총 9개 부스로 전북홍보관을 운영한 전북도는 올해 총 23개 부스로 확대 운영하고, 오렌지카운티 아리랑축제에도 5개 부스 규모로 전시·홍보관을 병행 운영하며 현지 교민은 물론 내방객을 대상으로 시식·판매 및 전시·상담을 진행했다.

이번에 참가한 도내 23개사(약 48품목)는 김치, 고춧가루, 참기름, 건강즙, 절임식품, 홍삼가공품, 선식류, 추어탕, 누룽지, 쌀, 라면 등을 전시·판매했으며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2일에 LA 한인축제 농수산물스톱오 전북홍보관을 찾아 참가한 도내 농수산물 기업 23개 부스의 전북 농수산물 제품을 함께 홍보하고 격려했다.

며 전북홍보관을 찾아온 내방객들의 한국 농수산물에 대한 호응 속에 특히 장류, 누룽지, 추어탕, 박대, 계장 제품이 인기를 모아 5개 제품의 총 판

매액이 22만불에 육박할 정도로 현장 판매에서 많은 성과를 보였다. 이와는 별개로 현지 유통 바이어들과 별도로 총 2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

으며, 냉동농산물, 떡볶이를 생산하는 F사는 내년 초에 10만불 가량의 샘플 수출을 논의하였다.

이번 축제에 참가한 A기업은 "미국에서 최근 몇 년 새 김치와 떡볶이 등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좋은 시기에 도 불구하고 기업이 직접 해외시장을 개척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기회로 신규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축제 기간 전북홍보관을 찾아 도내 업체를 격려하며 "현지 소비자 대상 시식 및 현장판매가 가능해 영세 농수산물 기업들의 해외 시장개척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한인축제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행사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 수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바이어 초청 상담 지원 또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제16회 전북 미용예술경연대회 성료

헤어 등 7개 종목 대상... 지역 미용인과 전공 학생들 열띤 경합

전북도는 17일 군산 월명실내체육관에서 미용 산업의 발전과 도내 미용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제16회 전라북도 미용예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사)대한미용사회 전북지회(회장 최인자)와 함께하는 이번 대회는 미용 관련 분야의 최신 경향을 공유하고 미용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화합의 장으로 미용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미용예술경연대회는 미용전공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헤어, 메이크업, 네일, 이용 등 7개 종목에 480여점의 작품이 출품돼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전북도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미용인 16명(일반부 8명, 학생부 8명)을 선정해 도지사상을 수여하고, 우수 미용인재의 경우 우리지역을 대표해 각종 대회 출전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부대행사로 △헤어 작품 전시, △모델 헤어쇼, △최신 미용 기자재



전시 등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화려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축소됐던 미용 경연이 완전한 형태로 재개되어 열린 만큼 지역 미용인들에게 더욱 뜻깊은 자리이다"며, "도내 우수한 미용인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기회와 장이 되고, 미용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단 격려

총 48종목·1712명 참가

전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라남도 목포를 방문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단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9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며, 전북에서는 48종목 1,712명(선수 1,189, 임원 523)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이날 전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부상 없이 좋은 결과를 거두길 바라며,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보여 주는 전국체육대회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전북의 명예를 걸고 열정과



연습으로 지금까지 준비한 선수와 강도 높은 훈련을 비롯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지도자분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체육회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자경위, 남원경찰 중앙지구대 방문

제78주년 경찰의 날 맞아, 기념 포상·현장으로 초청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17일 제78주년 경찰의날을 맞아 남원 중앙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 표창을 수여하고, 일선 현장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민 전라북도도와 김철수 남원경찰서장, 현장경찰관 등 10여 명이 함께 했으며, 현장경찰관에게 직접 표창 수여를 하게 돼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수상자인 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공중응급감은 "자치경찰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위원장은 경찰의날을 기념해 자치경찰 사무 수행 경찰관 99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자율방범대 및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인 31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재훈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전 조성 위한 개간공사 시행 공고

- 사업목적 : 전 조성을 위한 개간공사 시행 (밭작물(고사리채배))
- 사업명 : 소규모 자력 개간사업 - 사업시행자 : 이태형
- 위치 : 고창군 해리면 풍송리 산 52-10
- 사업시행면적 : 4,452 m²
- 사업개요(예상감보율 포함) : 예상감보율 0% - 준공후 수로관(500x500), L=271.0m, 휴관(D600), L=15.0m, 집수정(1.0x1.0x1.0)6개소
- 총사업비 : 1,745만1,000원(자부담)
- 사업기간 : 2023년 10월 ~ 2024년 10월 30일
- 사업계획열람장소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
 ※ 의견(이의신청)제출 기한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처 : 고창군 건설도시과)

2023년 10월 18일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